가뎡부인

최근의부인운동

십오일밤청년회관에서 ◇일본 오무메오녀사 강연

일본녀류사상가(女流思想家) 오(奧)무메오녀사를청하야 십오일오후팔시에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강연회를열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당일참예하지못하신여러분에게까지 널리전하야 드리기위하야이에강연속긔(速記)를그대로 지면에 발표하려함니다 먼추의여디가업는만장텬중의박수갈채속에생긋생긋우스면서녀사는등단하야

나는이번 처음으로조선에왓슴니다 일본서를른 조선에 대한이야기를 만히들엇스되 진정한 조선사정을 알길이업섯고더욱이 부인운동에 대하야는 얼마큼 진행된것을 소식으로조차도 듯지못하엿스나 부인운동에종사하는 나로써는 여러분과가티 반드시생각하여볼일도 응당만흘것이요 또한 손목을맞잡고 한의일하야 나갈것도만흔줄 압니다 내가부인운동을 시작하기는대정십년부터이엇고지금도

동지들과 함의미약하나마 성력을 다하고잇지마는 이것이 결코참정권(參政權)운동은아니올시다 당시에일본서는 녀자가정치에 관한연설이나시사(時事)문데강연에 듯기만하려도가지못하엿습니다 마치 열두어살먹은 아이들을다달하듯『고라고라』는녀자들이정치연설, 시사연설을드러서 무슨필요가잇나』하고 절대로 입장을허락지 안엇습니다 다만내가녀자인연고로 정치연설, 시사연설회에 참석지못하게된다는 무리한법이 어대잇시랴? 여긔까지우리의 자유를

압박하고 구속하는그고통을우리가 달게밧고 그대로잇지는못할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대정칠년부터 딸, 구, 십, 십년사년동안을 계속하야 우리의자유를누르고 우리의 하는일을박해하려는 모든패악한자들을 일일히물리치기로 결심 하엿습니다 대정십년에 이르러우리의 운동은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議院)에문데가되여 얼마큼 성공할희망이 보이엿스나십년삼월이십륙일더욱이 오후일곱시라는그최후의 시간은 치안경찰법(治安警察法) 데삼조로인하야마츰내우리의정치뎍자유는통과되지못하엿습니다이에우리는너무도 기가막힌 반대연설을 물고등촌(廣村)씨의 강연이 잇섯스나드

분개함을 참지못하야여 된여산산히참패하고말엇습니다 만약조픔이라도 상당한 생각이 잇는사람이고보면우리의의견을 공론에지나지못하는것만으로는 돌리지안흘것이엿마는당시의일류신사라는모든사람은『녀자가 정치?』『녀자가사회?』ㅡ무슨

큰변괴나 생긴듯이 가뎡이외에서는다시녀운측이지못할것으로인뎡하엿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것으로세상이참텁된이상사회의한분자인녀자가가만히집구석에파무처고만잇다하면그나라는망할것이오그사회는너머질것이올시다그밧게『녀자에게 참정권을준다하야도아즉은시대가일으다』하고반대하는사람도잇섯슴니다 오늘내가 이자리에서 녀자의참정권 운동을 말하라는것은아니나이왕말이여긔까지 나왓스니말이올시다 녀자에게 참정권을주어도 능히그것을 감당할는지 못할는지 또는 아즉시대가일은지벌서 느젓는지 하는사람의녀자에게라도 그러한 권리를주어보지안하고야 엇지알리오 정치문데이고 사회문데이고 녀자가아즉도 거긔에직접 접촉하지못하엿스니 미상불

당장에는 민첩하지못할는지는 모르나 사회의권권을남자가항포한다는 그덤에는 도더히용서치 못할일이라고 할수밧게업습니다 이사회에 남자와녀자가 가티 사는이상녀구나사회의반수인녀자 그만큼 사회에대한절반의 책임을가진 우리녀성에게 사회가오래 동안그운동을무시하여 왓스니 그와가튼비례로이사회에도 막대한 손해가잇고결뎜이잇슬것이외다 그리고녀자들이 장구한시일을 오로지남자의 압박과 권제아래에잇섯고 또한로예에더지나지 못하는생활을 오늘까지 계속하야왓는족참고참고가슴에뭉키고서리고매친그큰뭉텡이를 반드시

폭발할날 이잇슬것이외다 불가리타는 의분(義憤)은배아를시긔가올것이외다 아니어서와야 하겟슴니다 즉다시말하면 녀자들이 반항의붓은긔빨을들고권투하기까지의최선(最善)의로력을하여야할것이외다 지금도벌서 여러가지부인운동이만히일어난줄맛습니다 일본으로말할지라도 정치에대한부인운동 경제에대한 부인운동 사회에대한부인운동이 날마다격렬하여집니다

아메리카 엇던학자는『부인운동은 현재남자의권리 디위 자유를 대상(對象)으로하야서 남자와 녀자를 똑가티 취급하여달라는것이라』고 말하엿습니다 그러나나다려 부인운동의의의(意義)를말하라하면 걸단코현재 남자의디위, 권리, 자유를 대상으로삼는것이 아니다 남자는남자 녀자는녀자로써의 활동을똑가티하고 또한그책임을똑가티 질머지자는것뿐 이외다 우리는 녀자다우리는 부인이다 우리는언제던지 녀자요부인이지결단코 남자로 변할것은아니외다 우리가부인으로 이사회에살기때문에가뎡도또한우리가 마터다스릴것이요정치나경제나 그외에모든것이

부인으로 써사회에처하는동시에 그만한권리와 자유가잇서야될것이라고하는말이외다 밧구어말하면 가뎡에대하야 진정한 부인ㅡ참으로어진안해 어진어머니가되라는것이다 그런데이사회가 지금까지엇더하엿는지 알수업다 정치문데 경제문데사회문데를남녀가협동하야의론하기는 고사하고 다만김고 깁흔

규방안에 가치워잇서평생은사람이되금수의 대우를밧엇고남자의가혹한 채찍속에 신음하던 생활을 하여왓스니녀자도 피가잇고 살이잇는남아에 가슴마다 울분과원한이엇지아니 사모첫스랴? 녀자들이 공연히 남자를미워함이 아니다 또한요사히언하는것은 아니다 녀자해방이니 부인해방이니 하지마는 우리는 부인으로써사회의 일원(一員)이 되야현사회제도에 복잡한 여러가지문데를가티해결 하고 일반책임을 가티하야

아름다운 새회를건설하자는것뿐이다 우리가 동정하는 새사회장차우리가그대로일우랴면소수의 녀자들로만은 결대로되지못할 것이외다 다수한녀자 아니 전사회녀자가결합하야 보조를가티 하지 안으면 안될것이외다 그럼으로 부인운동데일보에선 우리들은 한사람식한사람식먼저 눈뜬사람은 다른사람을 다른사람은 또다른사람의 정신을각성식히고 손목을 잇끌어각일각으로 부인운동에 권력을다하여야할것이외다 그리고 남자와녀자가 일치협력하야피안(彼岸)을바라보고 리상뎍

새사회를 마즈려나가게 되기를바라며 일본서 벌서거의십년동안이나 동지들과가티 미약하나마 지성을다하야 활동하는 나로써는 우리와가튼경우에잇는 모든나라녀자와 합의악수하고 나가기를 심히원하는것이외다 조선부인들은 매우원긔가왕성하고 활발한줄로 나는밋습니다 내가여긔와서 이틀동안에 그들은씩씩한긔운으로조곰도서슴지안코가슴에품은바를설명하는것을보앗슴니다다나는원세계부인운동이

조선녀자 에게로부터서작뎡이 아닌가하고 까지도생각하엿슴니다 오날도 이자리에여러부인들이 오섯지마는 누구던지일본에잇는우리들에게편지조선부인운동에 선진이된여러분에게려면지 서로서로사양치말고의사를교환하며또서로정활일이잇스면 서로부탁하기를 바람뿐만아니라조선에잇는한사람의녀자도 쌔여놋치아니하고 우리가 동일한보조로가든선상(線上)에향하야나가게된다 면내가오늘 조선을오게된 책임의만분지일이라도달하엿겟습니다(完)

一六七 落花(락화) 봄바람 번역

그쌔에 그장로와 젊은자와는 자미가잇는듯이 혹은 손을내둘으고 혹은억개를추석거리며 이야기하엿스나 그말소리는 들리지안엇섯다 거리가약간 멀은까닭인지는 몰랏스나 그래도분명히젊은자의 웃는소리는 들리엇섯다 벙어리이거나 귀먹어리이거나 울고웃고하는것은 사람의 진정에서 나오는것인즉 다른사람과 다를것이업슬것이다

그가만일 벙어리가 아니라하면 무슨까닭으로장로가 일부러강언덕까지나와서 배를타고그와가티 강을건너가서 그와가티그초옥속으로 들어갓슬가 그쌔의일을생각하즉 생각할수록 자긔의의심이 들어맛는듯하엿다 로선생은 손을치고 번개와가티 벌떡일어나며 큰소리로『준길이는살앗다!』하고 별장문밧그로뛰어나왓다

문밧게서파수섯든한사람은이것을보고 달려와서『장관어대로가심닛가?』하고황망히물엇다

그러나 로선생은 거름도멈추지안코『준길이를살리려 한사람만여긔서 파수보고 두사람은나를따라오너라』하면서 살과가티달리엇다

로선생이혹 불행히미치신것이나아닌가하고 의심하면서도 명령을 어길수업슴으로 뒤문에잇든두사람은 즉시 뒤를따라섯다 로선생은 길이거나언덕이거나 논두렁 밧두렁 풀밧가시덤불 할것업시닥치는대로 달리고 뛰고넘고하면서강으로내달앗다 그쎄르기가 마치폭풍과가탓다

두사람은 헐덕헐덕하면서 바득이그뒤를 따를사이에 로선생은벌서 이부장으로부터 울기강언덕으로와서 다리를 건너서사공의초옥으로 달려들어갓다 그러나속히 다시나와서『아아 이제는그만이다!』하고언덕우에털석주저안젓다

두사람은 이쌔에야 비로소쏘차와서『선생님 무엇이그만이어요?』하고물엇다

로선생은 갓분숨결로『별서벙어리도 도망하엿다 인제는퇴경의운명도 다하엿다』하고는이내죽은사람과가티 머리를 나려트렷다

이에한사람은 즉시 강으로나려가서 모자에다가 물을하나가득히 담아다가 로선생을적시엇다. 한쪽로선생은『응 아즉도괴운은 남앗다』하고다시일어나서 단장을 집듯이 한사람의억개에 매여달렷다

『선생님인제엇더케하랍닛가?』 로선생은 목장이 잇는곳을가르치며『이제는장부를낫나려가자 자아어서속히』하고부르지젓다

이러한것은모다 발광한 사람의행동과 일반이엇스나 그래도 명령대로 하는수밧게는업슴으로 ...

[illegible]

『갑작히안되엇습니다마는 어제아츰에 울기강언덕에잇는 초옥속으로 한젊은사람과가티 들어가시든량반이 아니심닛가?』하고물엇다

장로는 이상한듯이 로선생의 얼골을보면서

『네 그럿슴니다, 한데 무슨일로……?』

『아아감사합니다 여긔서뵈옵는것은 실로하늘의 도음이올서다 장로님 당신의대답한마듸야말로 내자식의생사를 판단하는것입니다 장로님 그젊은사람은 누구임닛가?』

장로는 역시괴상한듯이『글세올시다 누구냐고물으시면 대답하기가매우 곤난함니다마는 별로이름도업는』

『네 이름도업는?』

『네너무나가엽기때문에 내가날마다 독서하기를 가르치랴고 지금까지 힘을써온 벙어리입니다』

아아 벙어리벙어리 이로써준길이를 살려낼도리는 생겨난것이다 만월즐거움에 긔절하는벌이잇다하던 이쌔에로선생은 이장로의 눈압헤서 긔절을하슬뻔한것이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十六日正午 八六、〇 比較 十五日最高 八六、七
◇日出 前五時二五 晝間 一三時三五
◇日入 後七時二五 夜間 一〇時二五

어린이신문

일업는도야지

녯날에 느부자집에 개와 고양이와 닭과 도야지가 살엇섯습니다 하로는 그 집주인의 생일이 되야 큰잔치를 하는데 그날아츰에 그집 김생들이모다 모혀서 공론을하엿슴니다 개가 나서 말하기를『자! 오늘이 우리집 주인의 생일잔치인데 우리들 중에서 일아니 하고 놀고 먹는자는 누구든지 잔치에 쓸 고기로 잡혀 죽는다더라 큰일낫다』하니깨 고양이가 하는 말이『나는이집의 쥐를 모다 잡어주니깨 놀고 먹는자이 아니매 걱정업다』하고 또닭은 말하기를『나는때를 마추어서 색기요ㅡ하고울어 시간을 가르켜주는 일을 하니깨 걱정업다』하고 또개는 말하기를『나는밤에 자지아니하고 도적놈 못오게 직히니깨 걱정업다』하엿는데 도야지 혼자 아모 하는일이 업스니깨 잡혀 죽을까 보아서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잇섯습니다 불상한도야지를 보고 개와 고양이와 닭은 마음이 조치 아니하야 주인을 보고 말하기를『도야지에게도 무슨일이든지일을 하게하고 잡어가지는 말어주십시요』하엿더니 주인도 그리하겟다 하야 도야지는조타고『꿀, 꿀』하엿습니다

멍텅구리 자작자급 (60) 배달부지원

(一) 밥갑에 졸닌멍텅이

여보 밥갑도 멧달치씩 아니내며 날에세간 사지다ㅡ처부시러오 오늘은 밥갑을다내오

이런제기ㅡ! 어서 단돈얼원 석이라도 벌어야지

(二) 돈벌생각이 벗석나서

오냐ㅡ! 로동은신성이라더라 설렁탕 배달부라도 해야겟다 울치이러케 차림차리를해야 신용을더하겟지 에헴

(三) 설렁탕집 배달부를 청하다가

어서옵쇼 저리 드러갑쇼

아니요 저거시기 배달부로 채용해주

(四) 본색이 탄로되야 창피만

애 텅이다 텅이

여보 우리집에선당신갓튼 하이칼라 쓸데업소 조선일보석간 얻어가지고 참외나사슈

에이쿠 이리지 안어도 갈데는 만소

下東面民離散

男負女戴로故鄕을떠나　살길을차저사방으로

경남김해군하동면(金海郡下東面)에서는지난홍수에막대한수해를당하야 부근에일천여명보의 큰들이 잇는바다섯동리사람삼천여명이 그들로말미암아 먹고살더니 이번홍수에 그들둑에위싼 데방을구하고자수리조합원과면직원과경관과일반농민이 밤낮을 모르고걸사력으로 노력하얏스나 뒤붙이차서 삼분지이이상의 곡물이전멸된바 들만보고살든 그민중들은 봄부터 피땀을흘려가며짓든농작물을 일시에 녹여버리고 먹고살길이업서 남부녀대로 살곳을차저 선조로부터 정든고향을 리별하고 떠나는사람이만타더라(양산)

大同銀行과 商銀合併

계약까지 톄결햇다

대동은행림시 주주총회(大同銀行臨時株主總會)는 십일일오후세시 삼십분부터 평양상업회의소(平壤商業會議所)회의실에서 개최되엿는데 출석주주가 이백이십여명이엿스며 풍면(豊田)씨사회하에 회의를 행하게되자 반대파(反對派)의거두 삼강(森岡)상곡(桑谷)량씨는 개회벽두부터 총회의불법을 말하고의장이크게 소란되야 마참내는 감독관령(監督官廳)이외의 신문기자(新聞記者)의방텅을 불허하게되엿스나 결국다수의 채결로말미아마 대동(大同)은행은 상업은행(商業銀行)에 완전히 합병되고 합병가계약서(合併假契約書)까지 톄결되엿더라(평양)

府廳新築地에서 片木窃取犯

본뎡서에톄포

충청북도 괴산군문광면 대명동(忠北槐山郡文光面大明洞)에본적을두고 일뎡한주소가업는 리태영(李泰永)(二六)은 작일오후열시경에남대문통(南大門通)오뎡목이십구번디압길에서 길야뎡(吉野町)이뎡목삼십일번디최운보(崔雲甫)의소유인하차(荷車)한채와 경성부텽(京城府廳)신축공사장에서 편목이십오개를 절취하야가지고 도주하다가 본뎡경찰서원에게톄포되엇다더라

端川郡蠶繭 入札販賣의失敗

락찰시간이지나가도 입찰자는하나도업서

함남단천군농회(咸南端川郡農會)에서는 종래에 지뎡특약(指定特約)으로공동판매를 행하든 고치를 일반인민의비난이 잉등함을따라 금년여름고치부터는 경쟁입찰(競爭入札)에의하야계약판매하기로 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뒤락찰일(落札日)인 지나간십이일 오후한시가지나도록 입찰(入札)하는자가하나도업서서 드듸여 고치입찰은 실패에도라가고 말엇다는데 그내용은 고치사려고감찰허가(鑑札許可)원 드린상인은삼십명에 가까웟스나 이번입찰규뎡에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이천원과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오천원이라는됴건이넘우도만타하야 한사람도 입찰을하지아니한것이라더라

郡當局의辯明

별항입찰에 대하야 군당국을 향하야 입찰보증금이 넘우도과하지아니하냐질문한즉 『우리는 [illegible]

鐵道殺人

경남선산실에서

경남선(慶南線)데칠호야행렬차가지난 십삼일오후 구시삼십오분경 마산(馬山)으로부터 진주(晉州)를향하야오다가 동군정촌면 가좌리장좌곡(井村面加佐里壯佐谷)압해서농부한사람을 살해하얏다는데 그원인은 [illegible]

자로 생활이 곤난하야 십여일전부터 권긔룡군에게 삼십원의 채금을 어더쓰고 그집에서술을 팔어주고 잇든바 십삼일저녁에 그본남편 원가와 취중에한바탕싸호고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자살을하고자 그가티 약을사러 왓다가 필경주인리씨군에게 발각되엿든 것인바 이러한관계로 주인은 의외에혼이나서 삼십원을도로내고 계약을 해제키를 요구한다더라(청주)

三十圓債金에 몸이팔린女子

[illegible]

悲極慘絶한 靑春少婦의自殺

割腹, 投水, 또다시縊首

어린자식을품에녀코 방중에나가서목을매여

[illegible]

魔窟로몰려드는 두女性의將來

한순두순넘어갈사록 목구멍은점점만허간다

[illegible]

電車落傷出血

三十餘歲婦人

자긔집압에서

[illegible]

中國人에게 흘린鎭川婦女

욕을하며오면서도

충북진천(忠北鎭川)읍내에상점을열고잇는 중국인상덤에만 [illegible] 가진회롱을 바더가면서 [illegible] 중국사람은 쏘허물이업다고 하며 [illegible] 그외에도 [illegible] 엄중한주의를 시키조켓다더라(진천)

呼訴갓다가

警察署에

뺨을맛고자살코자 우물에빠져버렷다

[illegible]

전라북도 소원길의

[illegible] (안동현)

電車에重傷

청량리선에서

[illegible] (京城病)

曙光이비초인 育英義塾

校舍를新築하다

江原道伊川郡板橋面育英義塾은距今十餘年前에創立된後多數한靑年子弟를敎育하야社會에貢獻이不少하든中客年八月에不幸히校舍全部를燒失하야八十餘名의生徒가路에彷徨케되매臨時로敎會를借用하야敎舍로使用케되바充來決定한敎會로敎習할수업서六月에는

生徒全部

가逃散하고四五名에不過케되바面長車榮奎氏는此를遺憾으로여겨各方으로活動하야去九日區長會議를開催하고學校新築工事를協議한바滿場一致로可決되야不遠間工事에着手하리라는데一時悲運에陷하엿던育英義塾은一大曙光이비초인다더라(伊川)

金海各團體聯合으로 社會事情批判會

懇親會席上에서發起

金海靑年會主催로지난十三日午前十時부터合成學校樓上에서十九團體代表者懇親會가開催되엿는데若干의茶菓로過去一年동안各其團體의經過와所感을交換한後오래동안協議로되여오든各團體聯合機關組織에對하야討議하게되자主催者인金海靑年會代表崔璣浩君의

建議로

우리社會의重大한問題가突發할때에問題에是非를嚴重히判斷하야一般社會로하야금惡化에마치지아니할만한有力한輿論、批判、機關이될만한機關이必要하다하야懇親會는박구어社會事情批判會란發起會로하자고發論되자滿場一致로卽席에서同會發起會로變更하고崔璣浩君의司會로會名은亦是社會事情批判會라하고主義綱領規則等은創立準備委員에게依任하고散會하엿다는데當日出席團體와總會準備委員은如左하다더라

出席團體

金海靑年會　金海勞農聯合會　金海第四會　金海敎育會　金海新進女子會　金海女子靑年會　金海勞農團　東井勞農團　北內勞農團　東上勞農團　金海새빗團、金海永明會　金海納陵會　金海二五會　金海勞動靑年會　金海在京學友會

創立準備委員

崔璣浩　印東哲　盧百容　裵鍾哲　嚴水龍　田溶憲　(金海)

救濟音樂은 禁止!

◇不可解의警察

一般音樂會를開催

旣報＝義州留學生學友會에서東亞朝鮮兩支局後援下에音樂會를開催하야今番未曾有한大洪水로慘害를當한罹災同胞의萬一을救濟코저하엿스나警察의制止로不得已水災救濟의일음은빼고普通音樂會를開催케되야去十三日下午八時부터當地松會堂에서盛況을일우엇는데救濟會에보내는金額은十七圓二十六錢이라더라(義州)

吉州警察署 女性會合을禁止

團體組織을念慮하야

咸北吉州에는四五年前부터男性團體로吉州同志靑年會가잇거니와于今女性會合은업서왓슴을一般은매우遺憾으로생각하던바韓明國金玉順韓順欽等諸孃의活動으로去七日에創立總會를열게되엿는데當地警察은集合을禁止하엿다는바一般의輿論이沸騰하다더라

京咸線文坪에 海水浴場新設

咸南德源郡北城面文坪里海岸은海水浴場으로最適한地인데海水의淨潔과風景의明媚는元山海水浴場에勝함으로文坪驛에서는來客의便宜를圖하야臨時浴場을施設하고此에對한諸般設備가完成되면北鮮唯一의海水浴場이되리라더라(文川)

金海에歌劇會

收入은女子夜學에

原支局에서는去十三日에愛讀者慰安會를開催하엿는데聽衆은四百餘名에達하야盛況을이루엇고十四日에는愛讀者家族慰安會를開催한바더욱前日보다盛況을呈하엿더라(洪原)

去十三日午後八時半부터合成學校階上에서在京金海留學生學友會主催로男女學生歌劇舞蹈會가開催되엿는데當日의收入은全部女子夜學會의維持費로寄附케되엿다는바그內容은듯건대歌劇會開催의動機인즉水災民救濟歌劇會를開催할目的이엿스나當局의禁止로勿論되지아니할것을알고不得已그리되엿다더라(金海)

文友會定期總會

江原

通川留學生들은昨十三日午後一時부터通川公立普通學校敎室에서定期總會를開催하엿는데會長南相信氏의司會下에서左記事項을決議하엿더라

決議事項

一、明年度巡回講演에關한件
一、會則一部修正에關한件
一、會費徵收에關한件
一、任員改選에關한件
一、死亡者追悼에關한件(通川)

義州地日紀念盛況

義州天道敎宗理院에서는지난十四日午前十一時에同敎第二世敎祖海月神師의承統한地日紀念을盛大히擧行하얏다더라(義州)

愛讀者優待 活動寫眞

兩日間大盛況

◇本報洪原支局主催

咸興東明劇場活動寫眞隊는巡回中에當地에到着하엿는데本社洪

陽化少年少女 雄辯大會盛況

咸南陽化少年會主催와本報陽化分局의後援으로去八日下午八時半부터當地湖陽普通學校內에서陽化少年少女雄辯大會를開催하엿다는데場內場外에三四百名의聽衆이雲集하야初有의大盛況을呈하엿다는바當日演題及演士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逆境에는女子들에게　金粉淳孃
百尺竿頭라도團結과사랑이면　李楨伯君
現代靑年　崔秀鏞君
우리의覺醒時代가왓다　金桂月孃
朝鮮經濟組織의缺陷　金錫敏君
나의압길　高北實孃
金錢으로부터失敗까지　金泰化君
少女의將來策　李順玉孃

◎江華吉祥警校同窓會　江華郡吉祥面公普校第三回同窓會를去九日矢流島海上에서開催하엿다는데出席人員은十三人이오決議事項은

一、會費徵收의件
二、會員親睦과將來方針의件

新人會講演

盛況으로마추어

城津新人會에서는七月月例會에서決議한水災救濟講演및普天敎際對講演을數日前부터當地署에屆出하여運動中이든바지우昨十日午後八時부터元山商業學校校庭에城津末會有의大雄演會를開하고協世寬君의司會로八時半부터開會되어大盛況裏에서마추엇다더라、

◇演題와演士

普天敎의罪惡　金在水
性的諸關係의做洪　李利奎
水災被害同胞를憶함　金一東
現代生活과宗敎　姚永國
旣成文明의誤謬的事實　楊世寬
死線에立한우리의困境　方昌洛
大衆과歷史의必然的進展　李以石
(城津)

平康留學生會

會長制를委員制로

平康留學生學友會에서는八月十四日午後二時平康公立普通學校內에서第一回定期總會를열고會制를革新하고左와가튼決議와執行委員을選擧한後下午六時에閉會하엿다더라

新任執行委員　成龍珠　崔龍成
金昌善　林秉圭　李迎胄　崔甲道　金仁永(平康)

歡迎雄辯大會

松禾靑年會主催와 本社支局後援으로

黃海道松禾靑年會執行委員會에서留學生歡迎雄辯大會開催의件을決議하엿다함은別項報道와갓거니와同靑年會主催와本社支局後援으로來二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松禾靑年會館內에서留學生雄辯大會를開催한다는바男女를勿論하고만히參席하야주기를바란다더라(松禾)

夏期講習會

本報爵珍支局主催로

江原道爵珍邑에서는朝鮮日報爵珍支局主催로夏期放學을利用하야夏期講習會를開하고約二週日開學生及靑年에게必要한科目을敎授하는中인데期日場所科目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

期日　八月十三日부터至同二十三日
場所　爵珍講習所
科目　午前部(學生)朝鮮語、日語、數學
　　　午後部(靑年)自然科學、歷史、農業
委員　常務田炳文
講師　崔璟淳　郭鍾烈　李禹錫
(爵珍)

七月中의 黃海道産穀

黃海道廳에調査發表한바七月中穀物調査數는아래와가튼데水災에影響을難免이겟다하며白米八百九叺玄米八千八百二叺小麥三千七百十五叺大豆八百八十四叺인데檢査에合格되지못한總數는白米十叺玄米四百五十四叺白米百九叺인中搬出地와數量은仁川에玄米七千六百三十三叺小麥九百十二叺大豆七百六十四叺鎭南浦에白米二百四十叺小麥二千百四叺玄米七百十五叺이라더라(海州)

義州種牛産出狀況

義州郡畜産組合에서過去六年間種牡牛産出에對하야만흔奬勵을함으로그販路는크게널버저서寧山、朔州、昌城、龜城、鐵山、定州、龍川、楚山、渭碧等地와및平安南道各郡에까지輸出된다는데그間에産出頭數와및價格은如左

年度別	頭數 價格
大正八年	一二、三七五
大正九年	一三、四八五
大正十年	一一、四四五
大正十一年	一七、二五三
大正十二年	二五三、六二六
大正十三年	三五五、一六二

그리고十三年中郡內에서만賣買된것이六千九十九頭의多數에達하야價格이三十四萬七百十六圓이라더라(義州)

學父兄慰勞音樂

慶北尙州郡內에잇는留學生文友會에서文化發展과學父兄을慰安코자去九日午後八時三十分에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音樂會를開催바定刻前부터雲集한觀衆은幾百으로써헤일수업슬만치場所는立錐의餘地가업시盛況으로써同十二時頃에無事히閉會하얏다더라(尙州)

普專演藝來安

京城普成專門學校演藝部에서는文化宣傳에目的으로夏期를利用하야各地를巡回하고만흔歡迎을밧던中去十三日에는安東縣에來着하야安東縣靑年會와東亞支局本報安東縣支局의後援으로來十八日午後八時當地安東劇場에서여러가지音樂과時代에必要한劇도잇다더라(安東縣)

文坪에女子夜學

咸

南德源郡北城面文坪里에는距今三年前부터女子夜學을開設하야來繼續中인데諸般經費는當地有志朴胤祚氏가負擔하고敎員은金文成崔明龍兩氏가無報酬로熱心敎授하야現在生徒는二十餘名에達하고程度는普通學校三、四年程度인데附近人士는右諸氏等의熱誠을稱頌不已하다더라(文川)

景巖團總會

沙里院景

巖團에서는지난十四日午後八時에景巖團事務所內에서定期總會를團長李熙承氏司會下에開하고第三回西鮮庭球大會經過事項을報告한後任員을改選하고閉會하엿는데新任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

團長李熙承　副團長金貞俊　總務李聖寶　書記全德亨　會計李植翊　安鳳雲　庭球部長張始敎　蹴球部長崔祥福　氷上運動部長朴泰和　幹事李正淳　鄭錫俊　金潤根　金淀楫　(沙里院)

永興校學父兄會

咸南永興公普校學父兄會에서는去十一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臨時總會를同校敎室內에開催하고趙鳳儒氏司會下에經過報告와財政報告及任員改選이지난後運動場擴張에對하야附近家屋五六棟을買收整理할터인데總經費三千餘圓을學校費로支出할豫算이업슴으로全般學父兄이義務分擔키로하엿스며同校東側에在한舊金融組合建物及基地를買收하야校長官舍와및兒童遊戲場을設置하되此에對한經費는學校費로서支出하도록交涉키로可決하고午後六時에無事閉會하엿더라

會長李命奎　副會長韓昌鉉　總務元容國　庶務朱裕滿　會計爲滿瑞　評議員張永樹外十四人　(永興)

沙里院學友會總會

沙里院留學生學友會에서는定期總會를지난八日午後一時에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하고一年間經過事項을報告하고任員을改選한後同四時에閉會하엿다는데被選任員의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

會長李聖寶　副會長安鳳雲　總務劉洛俊　書記金錫根　金玉昆　會計李漢奎　金東玉　文藝部長任喆宰　體育部長李禎福　音樂部長金奎瓚　社交部長金潤根(沙里院)

松禾靑年委員會

黃

海道松禾靑年會에서는去十日午後六時에本社松禾支局內에서同會執行委員會를開催한바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決議事項

一、改革一週紀念의件
一、靑年習ㅣ의件
一、留學生歡迎雄辯大會開催의件
一、月捐金領收督勵의件(松禾)

利原學友委員會

咸

南利原留學生學友會에서는去八日午後一時頃利原勸業社에서委員會를開하고左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一、十三日에總會를召集할件
二、十八十九兩日間蹴球大會를開催할것을總會에提案할件
(利原)

◇寸鐵◇

【海州】　近日屋內屋外에서警察의눈을속여『곳』이盛行되야迷信을助長함은勿論이오夜深토록떠들거려安眠妨害가莫甚인데十四日에는北山公園에서公然히『곳』을하야愚昧한百姓에醜態를보혓다　市民아이『미친者의作亂』을默許할수잇슬가?

◇

【楊州】　白石面福池里富豪玄某는水災救濟會員이義捐을懇請한즉『一金十錢也』를쓰더라고　絶對의守錢奴는아니다

◇

【後紹】　後紹少年會主催로衡平社後紹分社의創立祝賀後援의可否에對한討論을하엿다는데그中어던나으리량반의연설은참자미잇는말이잇다『衡平社員은後援은하지마는　階級은업슬수업다』하엿다매우進步된말이다朋年쯤은徹底히覺悟될듯

平原蹴球庭球陸上競技大會

時日　八月十九、二十兩日間
競技場所　肅川公設運動場
申請期日　陸上十八日　蹴庭球十九日
申請場所　東亞日報社肅川分局
申請金　蹴球一團三圓　庭球一組一圓
抽籤　八月二十日競技場에서
主催　平原學友會
後援　東亞日報肅川分局　本社平原支局

第一回南鮮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二、二十三日兩日間
場所　南原公立普通學校코ー트
申請期日　八月二十一日外지
參加金　二圓
參加選手　三組一團
抽籤期日　八月二十一日午後八時用球赤M
賞品　優勝旗、賣、메달六個
主催　南原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南原支局